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의 창립과 양돈산업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양돈업계가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합의를 이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자조금을 배합사료에 부가하여 모으는데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 이는 아마도 잘못 의사가 전달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양돈농가가 정보가 어두워 잘 모르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제 자기 혼자 백신을 잘 하면 자기 농장에는 피해가 없을 줄로 생각되지만, 우선 앞으로는 반경 10km 이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병하면 국내 출하도 제한되어 피해가 크게 된다. 자조금 조금 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대일 수출이 중단되어 값이 폭락하는 손해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공동방역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돼지콜레라를 비롯한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천억원 정도 된다니 이중 몇 가지 피해가 큰 질병만 퇴치한다 하여도 생산비가 크게 내려갈 것이다.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대책본부)가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나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로 지연되고 있다.

차제에 전국 양돈농가 24,000호가 자조금 제도 찬성 서명 날인을 하여 선진 외국처럼 무임승차자가 없는 자조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해결하여 입법화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업계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자금 타령만 하다 양돈산업은 침몰하고 말게 된다.

이번 콜레라 박멸사업으로 대책본부에서 양돈농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지도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에 서명 날인을 받는 것도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양돈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소, 돼지, 닭 등 모든 축종이 힘을 모

우리 나라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꺾기대회, 서명 날인을 하고 흐지부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만은 끝을 보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다행히 돼지콜레라 박멸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책본부의 조직과 운영방법으로 오제스키 등 단계별로 돼지질병을 박멸해 나가려는 계획도 수립되고 있다.

아 추진하는 방법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우선 임의 자조금으로 배합사료에 0.5%를 부가하여 모금하는 것도 양돈농가의 올바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꺾기대회, 서명 날인을 하고 흐지부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만은 끝을 보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다행히 돼지콜레라 박멸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책본부의 조직과 운영방법으로 오제스키 등 단계별로 돼지질병을 박멸해 나가려는 계획도 수립되고 있다.

돼지콜레라나 오제스키 모두 전염경로를 추적하여 보면 떨어 농장에서 값싸게 돼지를 구매하는 데서 전염이 되고 있다.

돼지 장사의 방역을 무시한 방매가 돼지질병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게 된다.

이는 수차례 돼지 구입시 주의사항으로 홍보하여 왔음에도 아직도 자돈 구입 떨어 농장 돼지 구입이 방역의 사각 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조심할 문제이다.

최근 양돈산업의 모든 문제가 방역 뿐인 것처럼 방역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데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기 때

문이다.

이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등 식품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미 EU에서 항생제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 새로운 세기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너무도 빨리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식품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때까지 단계별로 모든 위해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양돈농가에 공급되는 사료, 약품 등 모든 생산자재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생산후에도 도축에서 부터 유통, 소매, 식탁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제는 나 혼자 백신을 잘 하고 농장 경영을 잘 해도 안되는 것처럼 생산자만 열심히 해도 생산 자재와 생산 이후의 처리과정 등 모든 연관산업이 어떻게 통합되어 협력해 나가느냐가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각자 업계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협력이 잘 안된다면 서로 공멸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본부의 발족은 모든 관련산업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양돈**